



來年파리協約外交會議

—日程·場所決定臨時總會 開催—

協約의 改正을 論議하기 위해 열리게될 外交會議 日程 및 開催地決定 工業所有權의 保護에 관한 파리 同盟臨時總會가 지난 10月 22~26日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開催된다.

同總會에서 결정된 議題는 確認되지 않았으나 지난 2月 4日부터 1個月동안 續開된 파리協約外交會議에서 未決인채 激論을 벌였던 파리協約의 革新問題를 다루려는 前哨戰場이 될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히 全加盟國이 開發途上國 및 先進工業技術國 그리고 社會主義國의 3그룹으로 나뉘어 國際工業所有權制度를 自그룹에 有利하게끔 改正을 誘導하려는 데에 그 底意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그룹 77個國과 10餘個先進國, 이에 대해 自國에 유리한쪽에 기울으려는 共產圈이 뒤범벅이 되어 있어 會議日字나 開催地에 관해서도 神經을 곤두세울 것이다.

이번 모임에 앞서 파리協約管理機構인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來年 3~4月頃에 케냐의 나이로비나 제네바 가운데서 擇一하도록 提案하였다.

同案은 제네바에서 열릴때는 會期를 5~8週間, 나이로비일 경우에는 6~9週間으로 되어있으나 개발도상국쪽에서는 선진공업국들의 會期遷延作戰에 對備해서 外交會議早期開催를 要求하되 개최지도 나이로비로 主張할 것이 分明하다.

나이로비는 유엔通商開發會議(UNCTAD) 第4次總會가 열린바 있으며 同總會에서 개발도상국의 1次產品輸出安定을 目標로한 1次產品綜合計劃이 採擇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數的優位를 誇示한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實質의이 焦點은 그룹內의 結束과 他그룹의 戰略探索에 置重된 것이며 특히 선진공업기술국들은 개발도상국 쪽의 주장이 貫徹되면 協約의 根本趣旨인 平等互惠原則이 깨어지게되어 國際特許制度가 根本부터 轉覆될 念慮가 있다는 前

提下에 現行體制를 固守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될 것이다.

페루, WIPO協約批准書寄託

—9月 4日字로 發効—

페루政府는 지난 6月 4日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協約加入批准書를 寄託하였다.

페루는 1967年 7月 14日 스투홀름에서 成立된 WIPO協約에 따라 豫算負擔 Class에 屬하게 된다.

따라서 WIPO協約은 페루에 대하여 9月 4日字로 發効하였다. (WIPO 提供)

아르헨티나, WIPO加入書寄託

—10月 8日에 發効—

아르헨티나政府는 지난 7月 8日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協約加入批准書를 寄託하였다.

WIPO協約은 아르헨티나에 대하여 오는 10月 8日字로 發効하게 된다.

(WIPO 公示第113號 1980年 7月 8日) (WIPO 提供)

아르헨티나, 파리協約加入書寄託

—10月 8日字로 發効—

아르헨티나政府는 지난 7月 14日 工業所有權保護 파리協約 스투홀름條約加入書를 寄託하였다.

파리協約 스투홀름條約 第1條 내지 第12條까지는 加入効力이 없다는 宣言을 함으로써 同協約은 아르헨티나에 대하여 第1條 내지 12條를 除外하고 오는 10月 8日부터 發効한다. (WIPO 提供)

핀란드, PCT批准書寄託

—10月 1日부터 發効—

핀란드政府는 지난 7月 1日 特許協力條約(PCT)加



入批准書를 寄託하였다.

1970年 6月 9日 워싱턴에서 成立된 이 條約은 同 條約第40條에서 規定하는바 同條約第64條(2)(a)(ii)의 留保條項을 除外하고 핀란드에 대하여 80年 10月 1일부터 發効한다. (WIPO 提供)

스웨덴, 비엔나協定批准書寄託

— 定足數안돼 아직未發効 —

스웨덴 政府는 지난 6月 5日 國際標章要素分類에 관한 비엔나協定批准書를 寄託하였다.

1973年 6月 12日 비엔나에서 成立된 이 協定은 批准 또는 加入國數가 定足數에 達하게되면 個別發効 日字가 公告될 것이다. (WIPO 提供)

쿠바, 마드리드協約批准書寄託

— 10月 7日 發効 —

쿠바 政府는 지난 7月 4日 商品出處虛偽 또는 誤謬 表示防止에 관한 마드리드協定 스톡홀름條例批准書를 寄託하였다.

1891年 4月 14日 마드리드에서 成立되고 1967年 7月 14日 스톡홀름에서 追加條例로 改正된 이 協定은 쿠바에 대하여 1980年 10月 7日字로 發効한다. (WIPO 提供)

美國半導體開發促進法立法

— 減稅등 政府支援案 國會에 —

美國企業들은 政府에 대하여 西獨이나 日本등 技術國들이 採用하고 있는 民間企業들의 研究開發促進을 위한 研究開發費補助制度의 法的保障을 要求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두가지의 減稅法案이 國會에 提出되었으 며 이미 下院歲入委員會講議問會에서는 產業界를 代表하여 美半導體產業協會(SIA)가 法案의 審議促進을 證言하였다.

SIA의 意見가운데에는 西獨 日本등은 民間의 연구 개발에 정부가 巨額의 財政支援을 하고있으나 정부 의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美國企業은 外國企業과 의 競爭에서 不利한 處地에 놓여있다고 主張하는 한편 設備投資를 勸獎하기 위하여 現行減價償却法등의 改正도 提議되어 있다.

특히 2가지 減稅要求法案中的 하나인 80年度 研究開發法의 骨子는 企業이 過去3年間平均을 超過하여 支出한 研究開發費에 대해서는 그 25%該當額을 減稅對象으로 하여 달라는 것이다.

다음의 80年度 研究再活性化法은 기업이 各大學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支給한 資金의 25%該當額을 감세하라는 것으로서 2法案 모두가 연구개발촉진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SIA代表의 發言要旨인즉 半導體는 宇宙開發이나 國防上 그리고 一般工業에 이르기까지 重要한 業種 이며 美國이 世界尖端技術의 先導力을 維持하려면 西獨과 日本등의 民間財政支援制度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의 半導體企業은 生産價格이 低廉하므로 이를 武器로 삼아 美製보다 20~30%나 싼값으로 對 美輸出하고 있어 日製 16KRAM 따위의 市場占有率 이 42%나되어 美半導體企業을 크게 威脅하고 있다는 SIA 대표의 주장이다.

또 美國內工場建物은 30年, 機械設備 10年, 車輛 3年半으로 各各 償却하게 되어있으나 이 期間은 不 合理하므로 건물은 10년, 설비 5년, 차량은 3년정도 로 加速償却制의 導入을 法에 反映시켜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卡特行政府는 減稅意思가 없다고 보고 의 實現與否은 11月の 大統領選舉後에 決定될 것 이 라는 觀測들이다.

美·日 工具交換技術特許紛爭

— 美 리튼, 日多數企業相對提起 —

美國의 콘그로메리트의 大企業인 리튼인디스트



리즈會社는 日本의 매시닝센터(MC)生産企業 10個社를 相對로한 集團國際特許侵害賠償을 要求하였다.

要求內容인즉 리튼이 傍系企業인 뉴부리덴 머신 비비전이 保有하고 있는 「스핀들을 定位置에 着設하여 工具를 交換」하는 基本特許를 侵害하였다 하여 向後 美國에 輸出하는 MC 1臺當價格의 0.4%, 限度額은 720弗의 特許使用料를 支拂하라는 것이 줄거리이다.

이번 요구에 대한 關係企業들은 그 要求條件을 首肯하는 傾向이며 나아가서는 現在 繫爭中인 美카네 앤드 트레카(K&T)와 日本工作機械企業間의 「自動工具交換裝置(ATC)」의 레키지라이센스問題에도 영향을 미치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日本企業들은 리튼과 K&T의 兩社에 特許使用料를 지불해야 할 것까지 覺悟하고 있는 듯 하다.

리튼의 요구방법인즉 日本의 各關係企業에 대하여 特許使用契約書를 發送하였고 그 契約서를 받은 기업은 日立精機, 牧野푸라이스製作所, 豊田工機, 三菱重工業, 大阪機工, 三井精機 등 10個社이며 이들 뿐아니라 앞으로 同種製品의 對美輸出企業은 모든 對象이 되리라는 觀測이다.

자세한 요구조건은 「스핀들을 定位置에 着設하여 自動工具를 交換」하는 MC의 對美輸出의 경우에는 1臺當價格의 0.4%, 限度額은 720弗로하되 向後 10年 동안에 年間 3萬弗을 超過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10年分을 一時支拂하면 그 金利分을 控除하겠다는 것이 다.

이같은 요구의 背景에는 리튼이 K&T로부터 0.4%의 特許料를 받고 있는 이외에 昨年에 벌어진 엑세로 會社와의 特許紛爭에서 勝訴하여 엑세로로부터 0.4%의 특허료와 賠償金을 받으면서 自信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對象企業들은 이미 個別解決方向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K&T도 2年前에 日本의 MC生産企業을 상대로 提起한 리튼의 基本特許에 自社開發의 改良特

許를 加한 레키지라이센스使用料 1.75%의 요구에 대하여 特許請求範圍를 變更, 再交付申請中에 있어 현재는 紛爭이 中斷狀態이나 1年以內에 結論이 나오게되면 이 분쟁도 積極化할 氣勢이다.

이같이 重疊되는 特許繫爭속의 日本 MC생산기업들은 終局에는 특허료의 二重支拂단을 回避함으로써 특허료의 低減을 最上의 目標로 하고 있는 듯하다.

社員의 提案活動積極化

—年間 1人最多는 3,300件—

各企業이 社員의 提案活動을 生産性的 提高手段으로 活用하고 있음은 國際의 共通事實로 되어있으나 그중에서도 日本의 提案制度는 보다 積極的이다.

우리 企業들도 最近들어 사원의 제안제도도 활용하는 率이 急伸하고 있으나 日本提案活動協會와 日本 HR協會가 共同調査한 日本企業들의 제안제도활동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同調査에 의한 1件의 제안으로서 最高의 經濟效果를 거둔 例로는 川崎製鐵의 59千萬圓이며 1人의 年間最多提案은 1日 9件뿐인 3,300件이다.

이같은 제안활동은 生産性提高뿐아니라 사원의 經營參與意識提高, 能力開發手段으로 認識된다고 보고 있으며 今年들어 지난 6月까지의 上半期에 1人平均提案(400企業對象)件數는 7.19件으로서 前年보다 66.6%가 增加하였다.

同期中最多提案企業은 日立製作所의 229萬件으로서 지난해의 最多企業인 松下電器의 177萬件보다 훨씬 上廻하고 있다. 企業當 1人最多는 富士電機의 99.23件, 個人最多는 역시 富士電機의 3,331件이다.

提案主題는 作業方法改善이 31%, 에너지, 資源, 材料, 消耗品의 節約이 13%, 職場環境改善이 10% 및 其他등이다. 그가운데서 特許, 實用新案으로의 出願은 824件이며 提案에 비교한 出願率은 높은 편은 아니다.